

전남도, 상반기 수출상담회 2500만달러 계약 성과

수출유관기관과 공동 주관 해외바이어 51개사 등 참여 제품품평회·컨설팅 등 호응 “기업 수출경쟁력 지원 강화”

전남도가 ‘2024년 상반기 우수상품 품평·상담회 및 수출상담회’에서 250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1일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업무협약 46건, 수출계약 2553만 달러 실적을 거뒀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재)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수출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국내 식품수출기업 지원사업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수출상담회 참가를 위해 해외바이어 33개사가 전남 대거 입국했으며, 국내 대형유통 상품기획자(MD) 18개사와 전남 기업 106개사도 참가했다. 또한 전남 농수산물식품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 신시장 바이어들이 함께했다. 해외 전남 상설판

매장 운영사 12개사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3개사도 참가해 전남 우수 농수산물 품발굴에 힘썼다.

해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외바이어의 한국지사 관계자 및 국내 대형 유통기업 상품기획자(MD) 초청 제품품평회를 병행하고, 해외 식품시장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됐다.

그동안 전남도는 농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맞춤형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맞춤형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수출단체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에 힘썼다.

전 세계 12개국 32개소의 전남 해외 상

설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미국 뉴욕(‘FANCY’), 중국 상하이(‘SIAL’) 등 글로벌 굴지의 식품 박람회 전남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기업 간 거래(B2B)플랫폼인 트리트지와 연계한 전남관을 운영하는 등 농수산물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수출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수산물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과 김 경쟁력 제고사업, 온·오프라인 상설판매장 경쟁력 강화사업 등 수출 확대 지원 정책으로 전남지역 영세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케이(K)-푸드의 본고장, 전남도 농수산물식품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소울푸드”라며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한국인의 소울푸드와 남도 음식을 널리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물식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총 2억3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성장했다. 전남의 효자 수출 품목인 김, 전복, 해조류, 유자, 장류 등의 글로벌 인기로 힘입어 2023년 1월부터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박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민의날 연계 ‘정책평가박람회’ 연다

25일 30개 정책 전시부스 현장평가로 시민의견 반영

광주시는 제59회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25일 시청 1층에서 ‘정책에 색을 입히다’를 주제로 시민이 시정을 평가하는 ‘2024년 정책평가박람회’를 개최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정책평가박람회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복지·돌봄·포용 △교통·안전 △환경·정년·교육 등 5개 분야 30개 정책의 전시부스에서 시민이 더 좋은 광주를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을 2개씩 선택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별도로 마련된 시민의견판에 별모양의 붙임쪽지(포스트잇)를 활용,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30개의 정책평가 결과를 대형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줘 시민이 직접 입히는 다채로운 광주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30개 주요 정책은 지난 4월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온(ON)’ 등에서 시민(3704명)과 시·구 공무원(1007명) 등이 참여한 ‘52개 후보정책 가운데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정책은 △대한민국 NO 1.

광주 복합쇼핑몰 3종, 이제는 뽀니! △AI+미래차+반도체 중심 앵커·혁신기업 유치 △광주전역을 비엔날레 축제장으로!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 ‘꿀잼 공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65일 운영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견고 숲은 도시광주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합쇼핑몰(2개), 주변 개발계획 대비 광전권역 특별교통대책 수립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공공주택 건립 등이다.

광주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책평가박람회 설문조사로 광주시가 계획 중인 정책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언제나 뉴스로 가볍게 보고 지나쳤는데 이렇게 보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등 정책평가박람회와 주요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현장평가를 시작으로, 시민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7~11월 경제인 평가와 지역사회리더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12월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올해의 베스트(Best) 10 우수정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5·18 망월묘역 역사적 가치 재조명해야”

시의회서 ‘기억의 터’ 토론회

‘민중 성지’로 자리잡은 광주 망월동 묘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은미(정의당, 비례)·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서구갑)·윤영덕(더불어민주당, 동남갑)·조오섭(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과 정다운 광주시의원, 광주·전남추모연대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억의 터로서 망월동 묘역을 다시 생각하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봉국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는 “망월묘역은 국가에 의해 배제되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의 장소였으며, 동시에 그들을 통해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이고 편협한 국가주의 공공성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입체적이기도 했다”며 “때문에 망월묘역에 잠든 ‘열사’들과 일상적인 사회적 틀, 규범, 가치로부터의 이탈을 감행했던 수많은 순례자들의 흔적은 5·18과 망월묘역이 결코

1980년 5월에 정박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공공성의 실현이 배제된 채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다양한 서발턴(subaltern)에게 사회적 자리와 권리를 부여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공공성의 확장을 가져왔던 망월묘역에 깃든 연대의 실천과 기억은 여전히 새롭게 재해석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창희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18은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5·18의 성역화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망월묘역 방향성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다운 시의원은 “망월동은 민주화운동을 품은 5·18로 표현할 수 있다”며 “망월묘역이 후세대로 하여금 민주화의 성지로서 그 역사적 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시민운동의 동력을 확산시키는 기억의 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맛있게 드세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22일 북구 두암동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시, 뿌리산업에 제조로봇 도입한다

지역기업 3곳 공모사업 선정

광주시에 지역 뿌리산업 기업들의 제조로봇 도입 등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지역기업들을 지원해 산업부 ‘제조로봇 공모사업’에 지난해 4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3곳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첨단제조로봇실증사업(지역실증형)’ 공모사업에 ㈜효광, 남도금형(주), 대한공조(주) 등 지역기업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첨단제조로봇실증사업은 고강도·고위험이 있는 작업기피 공정 등 제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도입해 실증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이들 기업에 로봇공정모델 실증 지원에 나선다.

광주지역 뿌리기업은 자동차·가전제품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소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인력이 필요한 단순 반복 공정이 많아 근로기피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뿌리산업 첨단화를 통한 근로기피 공정 인력 대체를 위해 지난해 광주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기업 수요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로봇기업

과 SI(시스템통합)기업의 상담을 한 뒤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광주기업이 3개사가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광주시는 산업부의 ‘제조로봇플러스사업’에 4곳이 선정돼 지역 뿌리기업에 로봇시스템 도입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46% 향상됐고, 불량률은 평균 74%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역 뿌리기업의 실수요를 기반으로 기업현장에 맞게 첨단제조로봇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챗지피티’로 도정 홍보 나서

GPT스토어에 전남 맞춤형 제작 관광 분야부터 시범 제작·운영

전남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대표주자인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도정 홍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픈AI’에서 운영 중인 ‘GPT 스토어’에 전남 맞춤형 지피티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GPT 스토어 서비스는 일반적인 챗지피티와 달리 특정 정보를 학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

공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고품질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도는 오는 7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먼저 전남의 관광 분야 지피티를 제작·운영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을 반영해 향후 도정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무 추진계획부터 각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도정백서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이를 지피티에 입력하고, 학습시킨다.

지피티학습은 지피티가 사용자들에게

전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정보취합 및 선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도정 관련 정보를 선별하고 지피티에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전남 특화 지피티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맞춤형 지피티 제작으로 시간, 장소, 언어의 한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효율적 도정 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는 기반으로 삼아 향후 도정 곳곳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지혜 기자